

대한전선(주)

몽골 SkyTel사,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본격
이동전화서비스 개시

대한전선과 SK텔레콤 60% 지분
공동참여

대 대한전선(대표 兪彩濬)과 SK텔레콤(대표 趙政男)이 공동으로 참여한 몽골 제2 이동전화사업자 SkyTel社가 지난 7월 8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서비스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이동전화서비스에 들어갔다. SkyTel社 본사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대한전선 유채준 사장, SK텔레콤 조정남 사장, 몽골 현지파트너 관계자 등이 대거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SkyTel사는 총 자본금 5백만달러로 지난 4월 대한전선, SK텔레콤, 몽골 Univcom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대한전선 35%, SK텔레콤 25%, 몽골 현지파트너 등의 40%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SK텔레콤은 아날로그 장비를 현물출자하고 현지 무선망 설계 전문가와 시 설치국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몽골 최대의 민속축제인 「나담축제」에 맞춰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으며 현지 엔지니어들에게 아날로그 운용기술 이 전도 실시함으로써 몽골에 이동전화 운용기술 습득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대한전선은 몽골 유선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몽골의 통신망 확충사업에 지속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대한전선과 SK텔레콤의 몽골 진출은 국내 통신시장이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고 또 통신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해외에서 이동전화 수요를 창출해 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중국 동남아 남미 등 저개발국 이동전화 시장에 추가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전선의 현지시장경험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기술 및 운용노하우를 바탕으로 SkyTel社가 본격 서비스에 들어감에 따라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던 시점과 맞물려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은 물론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도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한전기공업(주)

전기분야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新 韓電機工業(대표 朴吉相)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주최한 '99 전기분야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 22일 전기조합 이병설 이사장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경진대회에서 총 9개 참가팀 중 신한전기공업 오투기 분임조가 '누유부위 재작업 감소로 원가절감'이란 품질혁신 프로그램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밖에 조일성업전기, 산일전기(주),

동미전기공업(주), (주)한창트랜스가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이들 업체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한전기공업(주)와 함께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전국품질경진대회에 전기분야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이병설 이사장은 대회를 통해 "품질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구조의 혁신은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라며 "업체들 각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품질혁신을 통한 경쟁력강화로 품질 한국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등의 결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LG전선(주)

광케이블 미국·유럽
수출길 열리다

LG 전선(대표 권문구)이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 텔코디아 연구소(Telcordia Technologies)로부터 광섬유와 광케이블에 대한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텔코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통신장비 및 정보통신 전문연구소로 미국 뉴저지에 소재해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증을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는 애릭슨, 피렐리, 스미토모, 루슨트 등 세계적인 통신장비 업체들로 LG 전선이 광섬유와 광케이블로 텔코디아

아 인증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LG전선이 이번에 텔코디아로부터 인증을 받은 품목은 싱글모드(Single Mode)광섬유와 옥외용 루스튜브(Loose Tube)형 광케이블로 제품의 광학특성과 제조설비, 검사, 시험 방법 및 품질관리 등 설계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G전선은 지난 달 세계에서 처음으로 450km 초대형 광섬유 프리폼을 개발한 바 있어 날로 치열해지는 광케이블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선은 이번 텔코디아 품질인증을 계기로 그 동안 주력해오던 동남아와 중동 시장에서 벗어나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는 유럽과 미국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작년보다 300% 늘어난 6000만달러의 광케이블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일본 수출 촉진단 파견 성과 및 일본 중전기기업계의 현황

한 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전력기자재업체 및 관련기관 단체 등 총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일본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을 일본의 도쿄, 나고야, 오사카 지역에 파견하여 5천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었다.

이 촉진단을 파견하게 된 동기는 '95

년 일본의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경쟁 원리를 통하여 2001년까지 전기요금 20% 인하 발표('97)가 있었고 일본의 각 전력회사들이 원가절감을 위하여 품질보다 가격을, 국내조달보다 해외조달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적기에 이 촉진단 파견을 통하여 시장선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중 규모가 큰 도쿄, 중부, 관서 전력회사와의 협력업체와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아웃소싱 등을 모색키 위함이었다.

이 촉진단 파견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일본 진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한국 전력공사 남품업체를 중심으로 중전기 대일본 수출협회체를 구성, 일본 전력회사의 입찰정보를 조기입수하여 업체에 제공하고 전력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유도, 시장개척단의 지속적인 파견, 일본전기전사회에 한국홍보관 운영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일본의 전력기자재 시장을 노크할 예정이다.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계획하고 한국전력공사와, KOTRA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주관으로 추진한 「대일본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 파견은 우리 중전기제품이 일본에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 행사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잘한다면 중전기 대일 수출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최근 일본의 전기업체 동향을 보면 범용기술은 동남아지역에 이전하고 최근

들어 Engineering 기술 및 전력전자 응용력기술, 전기환경기술 등 신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동남아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옮겨 가격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대중공업(주)

수직자동용접기 국산화

現 代重工業(대표 劉在院)은 최근 기존의 日製장비보다 훨씬 가볍고, 활용폭이 넓은 수직전용 자동용접기(모델명 : HD-MINI-EG)를 개발, 현장에 도입했다.

이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사용해오던 수직자동용접장비(KOBE-SEGARK CARRIER)가 과거 일본에서 도입한 구형인데다 수입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점을 들어 개발에 착수한지 1년여만에 실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용접기는 경사각 45~95도에 해당하는 선박 외판부위를 상하로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용접하는 장비로 21kg인 日製에 비해 무게를 6.5kg이나 줄였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중량한계를 20kg으로 볼 때 중량물 운반에 따르는 허리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장비의 최대 장점이라고 이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또 지금까지 수동용접만 가능했던 용접장(銲接長) 길이 4m 이하 부분과 최

회 원 사 동 정

초 용접부위의 비용절감(용접기 몸체 부분에 가려 자동용접이 안되는 부분) 부위까지도 자동용접을 가능케 함으로써, 수직부위는 100% 자동용접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수동에 비해 5배 이상의 작업능률이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용접용 케이블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던 기존 장비에 비해 이 용접기는 수동케이블을 겸용할 수 있어 그 만큼의 부가작업이 필요없으며, 가격면에서는 일제장비의 수입가가 3천만원선인데 비해 4분의 1 가격이면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기연구소

고속펄스 MAG용접기 국산화 개발

디지털 신호처리 프로세서(DSP)를 이용해 두께 1.2mm 박판에서 1분당 1백50cm를 용접할 수 있는 고속용접기가 개발됐다.

韓國電氣研究所(대표 權寧漢)의 전력전자 연구팀은 세일기전(대표 이현수), 부경대학교와 공동으로 2년여의 연구 끝에 그 동안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박판용 고속펄스 MAG 용접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펄스 MAG용접기(300A급)는 최첨단 32비트 신호처리 프로세서를 이용한 완전 디지털 방식 제어로 기존의 고속 용접시 불안정한 아크현상으로 나타나는 용접결함을 해결하고 두께 1.2mm 박판에 대하여 1분당 150cm를 고속용접

할 수 있는 장치이다.

특히 기존의 선진국에서 적용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제어의 혼합형에서 탈피, 완전한 디지털 제어를 구현함으로써 전류의 파형제어가 매우 자유롭고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책임자 金恩洙 박사는 "박판 용접기술은 자동차산업, 전기기기 및 가전산업 등의 부품조립과 같이 대량 생산품에 적용되어 앞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LG산전(주)

전력기기 내진시험 합격

LG 산전(대표 孫基洛)이 영광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에 설치할 저압 배전반과 변압기가 미국 NTS(National Technical Systems)사에서 실시한 내진시험에 합격하였다.

내진시험은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향후 40년간 발생이 예상되는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대한 제품의 안정성 및 적합성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LG산전이 이번에 공급할 제품은 지진, 온도 변화 등 자연재해와 방사선 유출하에서도 원자력발전소 내 전원이 해당 기기에 적합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부하 개폐, 보호, 계측 및 제어 등의 운전을 안전하게 수행토록 내진설계를 이용, 제작되었다.

영광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와 울진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설치한 내진

적용 배전반의 경우 기술 제휴하에 외국 업체에서 설계, 제작하였으나 이번 제품은 LG산전이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향후 유사 프로젝트에서 수주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 (NTS社は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지진 시험 전문 연구소 겸 회사이다.)

한국중공업(주)

삼성중공업 발전설비 인수 합의

韓 國重工業(대표 尹永錫)은 발전설비 및 선박용엔진 모두를 삼성중공업에서 넘겨받기로 했다.

또 한국중공업이 삼성중공업에서 인수하는 선박용엔진 부문은 별도 독립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한국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중공업 부문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이관사업 범위 중재단은 지난 7월 5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공업부문 빅딜합의안을 발표했다.

두 회사가 이날 작년 9월 중공업 부문 빅딜방침을 밝힌 이후 10개월만에 절충점을 찾음에 따라 한중 민영화는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양사는 한중으로 넘기는 삼성중공업의 발전설비 가운데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발전용 보일러는 CSFB(크레딧스위스 퍼스트보스턴) 등이 평가중인 미래수익가치(DCF)를 따져 한중이 삼성중공업에 100% 대가를

지급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 민수용 발전보일러는 한중에 무상 이관기로 했다. 선박용엔진에선 당초 삼성중공업의 주장대로 저속은 물론 중속과 육상용 엔진 등 삼성 사업일체를 DCF 가격으로 한중에 넘겨주기로 했다. 두 회사는 양수도 계약후 2개월 안에 선박용엔진 부문의 독립법인을 만들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필요한 현금을, 한국중공업은 현물 또는 현금을 각각 출자하기로 했다.

양사는 선박용 엔진 독립법인의 경영권은 한중이 소유하며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조선사들의 지분참여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중재단은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는 인력의 고용승계와 관련, "이관사업의 평가가격을 최종 결정할 때 두 회사가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삼성중공업 빅딜관련 인력의 대부분을 한중에 넘기는 대신 민수용 발전보일러를 무상이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삼천포화력본부

산업재해 예방 정부 표창

한 국전력공사 삼천포화력본부(본부장 이영철)는 제32회 산업안전 강조주간(7.1~7.7)을 맞이하여 지난 7월 1일 전국 산업안전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회관에서 열린 산업안전결의대회에서 이상룡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았다.

노동부가 전국 226,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유공 사업장을 선정, 표창한 이번 행사에서 삼천포화력 본부는 최근의 탁월한 안전관리 활동과 실적을 인정받아 산업재해 예방 유공 정부 단체표창 사업장으로 선정된 것이다.

삼천포화력본부는 금년 4월 무재해 1040만 시간을 돌파함으로써 정부 주관 무재해 5배 목표를 달성한데 이어 5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9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업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8.5점을 획득하여 노동부로부터 국내 제조업체 중 38번째로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56만kW급 4기, 50만kW급 2기 등 총 324만kW의 설비를 운영, 국내 총 발전의 10.8%를 점유하고 있는 삼천포화력본부는 국내 최초, 최대의 석탄 전소 화력발전단지로서 본부장 이하 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한전 내부 경영실적 평가와 품질경영심사에서 수화력발전 분야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에도 2호기 한주기 무고장운전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다.

삼천포화력본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고장, 무사고, 무결함의 3무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잠재위험설비 신고제도, 안전문화 평가지표 운영,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등 산업안전 분야에서 타 사업장의 모범이 되는 독특한 제도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본부차원에서 활발히 펼치고 있는 FIRST운동(Foremost, Innovation, Reliability, Scientific method, Teamwork-제일정신, 혁신적자세, 신뢰추구, 과학적관리, 전원참여)은 직원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밝은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보람운동, 내실 있는 노사 일체감 행사, 가족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등 노사 화합 측면에서도 내외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매사를 직접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 정평 있는 이영철 삼천포화력 본부장은 자회사 분리에 대비, 현재의 높은 운영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과 노사화합을 평소 강조해 온 것이 이번 정부 표창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K]

